日, 방생 통해 생명 소중함 되새겨

세계유산 코후쿠지, 방생 법요식
생태파괴 막기 위해 재래종 방생
코로나이후 첫 일반에 대중 개방
방생지, 성지로 이어나가길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물고기를 방생하는 코후쿠지 스님들. 사진출처=NHK나라 방송화면 캡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나라(奈良) 천년고찰 코후쿠지(興福寺)에서 방생 법요식이 봉행됐다. 이번 방생에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재래종 물고기를 절 옆 연못에 방류했다. 연례행사로 봉행되는 방생회에 대해 4월 17일 일본 'NHK 나라' 에서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7세기 후반, 당시 세도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이 창건한 사찰로 토다이지(東大寺)와 함께 나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찰로 유명하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성보유물로 1998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도량이다.

코후쿠지는 4월 17일 오전 관수(貫首) 모리타니 에이슌 스님을 법주로 경내 관음당에서 방생법요식이 봉행했다. 2020년과 2021년 방생법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후쿠지 대중스님들과 사찰 관계자들로만 봉행됐으나, 올해는 일반 대중들에게 법요를 개방하고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는 관광객들에게도 공개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후쿠지의 방생 법요식은 그 역사가 몇 백 년을 이어온 정례행사로 현재는 매년 4월 17일에 봉행해 오고 있다. 사찰 옆에 있는 사루자와(猿沢) 연못에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으로 방생을 봉행하고 있으며 이 연못은 일본에서도 방생지(放生池)로 유명한 명소다.

코후쿠지에서는 본래 다른 장소에서 사육된 금붕어를 방생하였으나 2년 전 부터는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 재래종을 방생하고 있다. 방생회의 자문을 맡은 긴키(近畿)대학 농학부 키타가와 쥰 교수는 "각지에서 봉행되고 있는 방생회가 코후쿠지의 선례를 따라 친환경적인 형태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재래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방생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방생회에서는 사루자와에 서식하는 생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육된 물고기를 방류하지 않고, 연못에서 포획한 100여 마리의 참붕어 새끼들을 법요식에서 가피하고 다시 연못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후쿠지 츠지 묘슌 스님은 "전통적인 법요를 이어나가면서 연못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사루자와 연못을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방생의 성지로 이어나가기 위해 결정한 방생법"이라고 말했다.

물고기를 방생하는 방식도 환경 친화적으로 변경됐다. 통에 담긴 물고기를 그대로 연못에 쏟아 붓는 방식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해 물고기를 천천히 연못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방생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방문했다는 30대 남성은 "방생에 동참하며 '생명을 소중히 하자' 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간다면 자식들에게 오늘 본 모습을 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고후쿠지 관수 모리타니 에이슌 스님은 "지금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똑같이 소중하다" 면서 "모두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소리 높여 세계에 전하는 마음으로 이번 방생회를 봉행했다. 생명의 소중함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泰, 방콕 국립 박물관 야간 개장

4일간 오후 4시~8시30분 운영
문화광 · 올빼미형 사람 등 초청


방콕 국립박물관의 '초전법륜상' (왼쪽)과 '청동 관세음보살상' . 사진출처=타이PBS

늦은 밤, 어둠 속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의 야간 개장 운영 소식이 화제다.

태국 공영 방송 '타이 PBS' 는 4월 22일 방콕 국립 박물관 야간 개장 소식을 전했다.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은 문화광, 미술품 감정가, 올빼미형 사람을 초청해 '박물관의 밤' 을 체험할 수 있는 야간 전시를 기획했다. 참석자들은 태국의 대표 문화재 에메랄드 불상에 이은 두 번째 국가 문화재인 '프라 붓다 싱' 에 경의를 표하고 풋타이싸완 왕좌 전시관에 있는 라타나코신 시대(1786~1932)에 만들어진 벽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왕실 장인이 만든 다양한 건축물과 유물을 관람했다. 수천 점의 유물들을 본 관객들은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

'박물관의 밤' 은 4월 20~24일 매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됐으며 영어 가이드와 함께 하는 박물관 투어는 오후 5시 30분, 태국어 가이드는 오후 6시, 6시 30분, 7시에 시작했다. 모든 관객은 백신패스 및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했다.

이번 야간 개장에서는 특히 눈여겨볼 전시품 2점, '초전법륜상' 과 '청동 관세음보살상' 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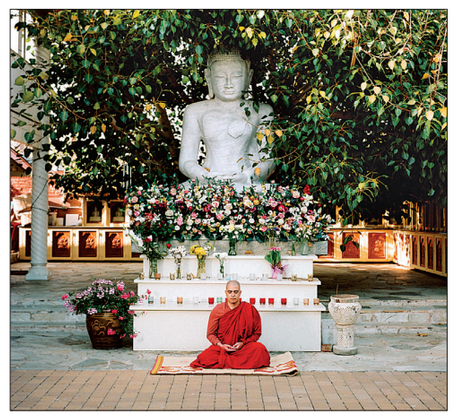
'루앙 뽀르 까오 실라 까오' 라고도 불리는 초전법륜상은 드바라바티(7~8세기 크메르계 민족국가) 양식의 좌불상이다. 이 유물은 불상의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두 개의 사원에서 발견됐다. 머리와 엉덩이는 아유타야 주 왓 프라야콩 사원에서 발견됐으며 가슴과 다리, 발은 나콘 파톰 주에 있는 왓 프라멘 사원에서 발견됐다. 태국의 예술 보존가들이 복원한 유물이다.

태국 만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수란타니에서 발견된 '청동 관세음보살상' 은 7세기~13세기 태국과 캄보디아등 동남아를 지배했던 고대 해양왕국 '스리비자야' 의 유물로 13세기에서 14세기에 제작됐다. 해당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불상이며 태국 남부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방콕 국립 박물관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1874년 라마 5세에 의해 개관했으며 태국 예술과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불교계 속 커지는 라틴계 불교공동체

LA 소재 사라트찬드라 사원
스리랑카 이주민 건립 도량


사라트찬드라 사원의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는사나타비하리 스님. 사진출처=더 가디언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주요한 종교였던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에게 불교가 주목 받고 있다. '더 가디언' 은 4월 15일 미국 내 라틴계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다.

로스엔젤레스 노스 할리우드에 소재한 사라트찬드라 사원은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건립한 테라와다 불교 도량이다. 지금도 스리랑카 스님들이 머물며 포교와 수행에 정진하는 이곳은 최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라틴계 불교도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사라트찬드라 사원에서 라틴계 불교도들을 지도하는 사나타비하리 스님은 로스앤젤레스 출신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8년 전 스리랑카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동남아 각국에서 안거를 마친 후 이곳에 정착해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멕시코에서 여러 차례 위빠사나 안거를 주최했고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 불교센터가 개원하는 것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신행활동이 각광받기 전부터 라틴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인 '가르침의 집(Casa de Bhavana)' 를 개설했다.

스님은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거나 일부러 포교를 통해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어로 말해지는 불교가 여기에 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스님은 "사원을 찾아오는 이들과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가사를 입고 주변을 산책하며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불교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원 측은 사원을 새롭게 찾는 라틴계 사람들은 영어에 능숙한 스리랑카 스님보다 스페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님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원에는 사나타비하리 스님과 함께 2명의 라틴계 출가자들이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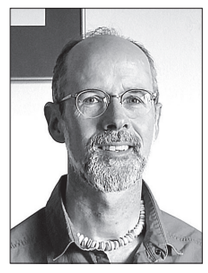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 얼마나 많은 라틴계 불교도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2014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불교도 12%가 라틴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님은 라틴계 불교도가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예전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명상을 배우기 위해 사찰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불교도로의 삶을 살며 불교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는 이 도시의 다른 불교 사찰을 방문할 때 종종 라틴계 불교도들을 만나곤 한다. 또 불교 밖에서 좀 더 실용적인 맥락에서 명상이나 불교수행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다"며 라틴계 불교도의 증가세가 가시적이라고 전했다.

30대 여성신도는 "몇 년 전부터 불교에 관심은 두었지만 스님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느껴 사원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어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불교수행자, 기후 경각심 일깨우려 분신

4월 22일 지구의날 美대법원서



불교수행가로 알려진 미국 환경운동가가 지구의날인 4월 22일 美대법원 계단에서 분신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에서 활동하던 윈 앨런 브루스(50 · 사진)는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법원 앞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고인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망날짜와 화재 이모티콘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윈 앨런 브루스의 분신 소식은 전세계 기후위기 활동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SNS기록과 지인의 입장표명 등을 토대로 그의 분신이 단순자살이 아닌 기후위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인의 SNS는 환경 및 불교에 관한 게시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불교단체인 샴발라 마운틴 센터에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샴발라 센터는 초감 트룽파 린포체가 창립한 불교 수행단체다.

그와 함께 명상수행을 해왔다는 기후 과학자 K.크리테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그의 행위는 자살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행한 두려움 없는 연민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크리테 박사는 고인의 분신 의미를 알리기 위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베트남인들의 소신행위와 관련,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자신을 불태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파괴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인의 페이스북에는 그를 아는 지인과 기후활동가들의 조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료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철야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희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방경혜
재 무 이법기
부 전 박대거
거사부전 김법면
사부대중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우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전화 3460-5300, 팩스 3460-5200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밝히자, 상생과 공존의 등불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주지 중산 무원
부회장 강영신 연혜숙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경전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전화 02)496-3839